

본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세에 맞춰 한국-미국 도시간 자매결연이 크게 늘고 있어 양국간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에 큰 특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사장 임수복)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서울을 비롯한 4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미국내 64개 시정부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7년 본국 33개 시·군이 미국의 36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던 버지니아주 소재 ‘국제자매도시협회’(SCI)의 통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장 최근들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충북 제천시·경남 김해시와 워싱턴주 스포캔·오리건주 셀렘.

지난 1961년 경남 진주시와 오리건주 유진의 자매도시 협정체결로 시작된 본국 지방자치단체와 미국 도시간 교류는 67년 부산-LA간 자매결연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 국제도시간 교

류를 통한 정보교환·통상 확대 등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본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매도시 협정체결이 붐을 이뤘다.

본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은 하와이주 호놀룰루와 워싱턴주 켄트 등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가장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와 앨라스크주 앵커리지 등 3개 도시와 협정을 체결한 인천도 선두주자.

또 첨단과학도시인 워싱턴주 시에

발한 교류를 유지, 모범사례로 꼽히 있다.

본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자매도시의 연을 맺은 도시들이 가장 많은 단연 캘리포니아.

서울과 자매도시 관계인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를 비롯해 LA(산), 캄튼(수원), 마리아나(동두천), 볼드윈팍(부천), 가든그로브(안양), 샌디에고(전주), 컬버시티(익산), 폭(남원), 롱비치(포항), 잉글우드(경주) 등 가주의 13개 도시가 본국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맺었다.

노세희 기

“피맺힌 한 풀고싶다”

일제 강제징용한인 미주연합회 피해배상 청구소송 내고 인터뷰

한인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법정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주지역 징용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2차 대전 피해배상 청구 한인연합회’는 27일 오후11시 라디오 코리아 도산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A 카운티 수피어리어 코트에 일본 민간 기업 미쓰이와 미츠비시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본국에서도 동시에 열려 일반인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번 소송엔 안성균(78)씨등 징용 피해자 8명이 대표 원고로 나섰다

되고 있다.

미주지역에서 일본의 만행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정신대, 중국인 강제징용 소송 등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

한인연합회는 향후 미주와 한국에 생존한 피해자들을 찾아 재판을 이끌면서 배상금액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제때 강제징용당한 권오현(81)씨는 “일본에게 당한 피맺힌 한을 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봄을 재촉하는 벚꽃

